

수은등 아래 벚꽃

황지우

社稷公園 비탈길,
벚꽃이 필 때면
나는 아팠다
견디기 위해
도취했다
피안에서 이쪽으로 터져나온 꽃들이
수은등을 받고 있을 때 그 아래에선
어떤 죄악도 아름다워
아무나 붙잡고 입맞추고 싶고
꽤 소주병으로 갇고 싶은 봄밤이었다.

사춘기 때 수은 직후의 그
죽어버리고 싶은 죄의식처럼,
그 똥덩어리에 푹푹 떨어지던 죄처럼,
벚꽃이 추악하게, 다 졌을 때
나는 나의 생이 이렇게 될 줄
그때 이미 다 알았다

그때는 그 살의의 빛,
그 죄마저 부럽고 그림다
이젠 나를 떠나라고 말한,
오직 축하해주고 싶은,
늦은 사랑을
바래다주고 오는 길에서
나는 비로소
이번 생을 눈부시게 했던
벚꽃들 사이 수은등을 올려다본다

달이 보름진 밤에

20160042 구인용

※ 읽기 전 주의 : 필자는 안타깝게도 낭만주의를 다소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이며, 본문에 간혹 유기적 세계관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나는 흐린 酒店에 앉아 있을 거다〉. 문학의 뜨락 동방에도 황지우의 시집이 여러 권 쫓혀 있었지만 굳이 이 책을 택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표지를 넘기자마자 보이는 ‘존경하는 서남표 총장님’. 시인 본인이 서명을 한 시집이 16학번인 나조차도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악명(?) 높은 총장님의 손을 거쳐 도서관의 무수한 책들 틈에서 나에게 발견되기까지, 그 묘한 역사를 생각하니 (유기적 세계관을 보유한 나로서는) 무척 매력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아무튼 그렇게 황지우를 만났다.

사실 시집을 한번도 ‘완독’했던 적은 없는 것 같다. 항상 적당한 이름의 시집을 골라 적당히 몇 번 펼쳐 보면 가끔 마음에 닿는 시들이 나타날 때가 있었고, 그러면 그 시집을 몇 번 더 펼쳐보게 되는 식으로 책을 읽어 나갔다. 그렇기에 ‘시집 전체에서 느껴지는 아우라’를, 다시 말해 시풍을 파악할 수 있을지는 조금 걱정이 되었다. 처음이기에 서투르게나마 감상을 몇 자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득 다가온 것은 황지우의 시에서 간간히 느껴지는 ‘온도’였다. “이 세상 모든 찬밥에 붙은 더운 목숨이여”(거룩한 식사), “강해숙, 드디어 미친년처럼 날뛰고 / 흰 무명천을 가르고 / 시멘트 바닥에 나뒹굴고 / 섹스하듯 허공을 어루만질 때 / 아, 그 더운 체온이 / 순수한 허공을 육체로 만들었다”(춤 한 벌) 등 연달아 실려있는 몇 편의 시에서 ‘더움’을 느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 더움은 체온에서 비롯된 사람의 온도였고, 나는 시인이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을 읽을 때마다 매번 감탄했다. 왜냐하면 보통 체온을 표현할 때의 온도는 ‘따뜻함’ 정도인데, 그에게는 ‘더움’이었음에, 마치 국밥의 뜨거운 김을 얼굴로 받는 것 같은 혹은 열풍이 느껴졌다. 그것은 놀라운 체험이었지만 간혹 답답하게도 느껴졌다. 몇 편을 읽다가 시집에서 고개를 떼고 숨을 트던 순간이 자주 있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몇 개의 시가 각본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는 것이다. ‘석고 두개골’, ‘지하철역에 기대고 서 있는 석불’ 등이 그렇다. 애초에 무대를 배경으로 하는 시들도 몇 편 있기에 황지우가 혹시 희곡을 썼던가, 하는 의문도 들던 참이었다. ‘감옥 안에 있는 떡갈나무’라는 시에서도 “이번에 이탈리아에 갔던 것은 타르코프스키 감독과 나의 시나리오 작품을 의논하기 위해서였다고 (중략)” 같은 구절이 나오기에 의문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여담이지만, ‘감옥 안에 있는 떡갈나무’는 매우 구체적인 이미지를 제시하는 반면, 마지막 순간에 제목 같은 비현실적인 반전을 준다. 나는 그 시가 실화를 바탕으로 지어진 것인지 알지 못한다.) 연혁을 들춰보니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연극원 교수로 재직했다더군 - 고개를 끄덕였다.

전체적으로 약간 독백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다. 다소 정제되지 않은 느낌이었다. 그것이 시인의 인간적인 모습을 가늠하도록 하는 효과를 주기도 하였으나, 비판하자면 낯두리 혹은 푸념을 듣는 기분이었다. 고백하자면 과제로 완독의 의무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몇 번 들춰보고 말 것 같은 시집이었다. (사실 漢字語가 다소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도 讀에 어려움을 주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시집에서 기쁘게 읽었던 시들이 몇 편 있었는데, 꼽자면 수업에서도 잠시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뼈아픈 후회’, ‘저물면서 빛나는 바다’를 비롯하여 ‘소나무에 대한 예배’, ‘수은등 아래 벚꽃’ 등이 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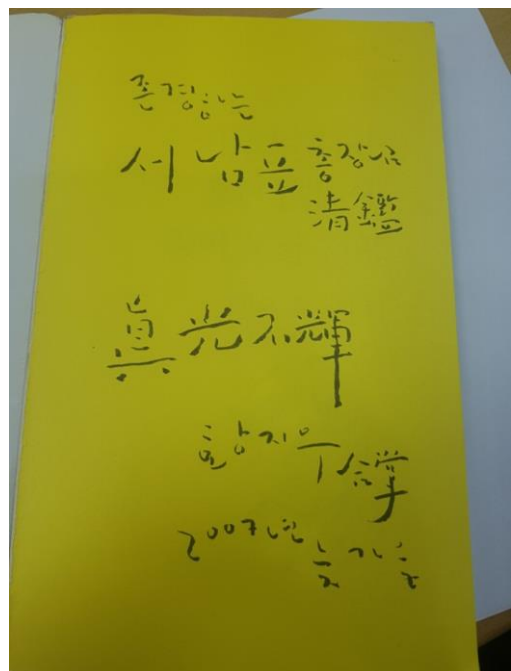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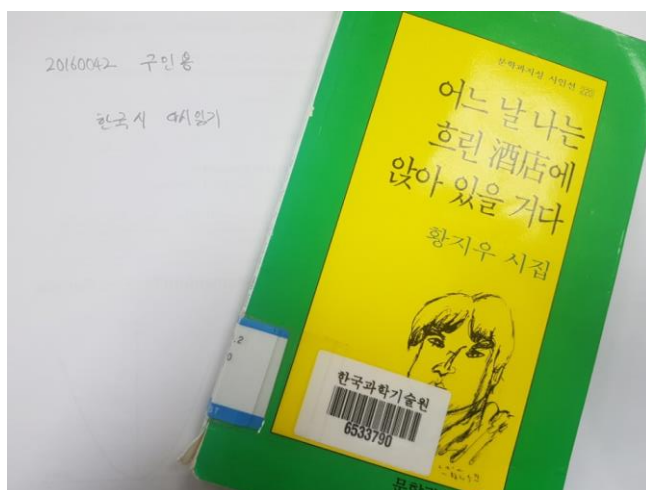
본 에세이에서 주목할 시는 ‘수은등 아래 벚꽃’이다. 황지우가 거닌 사직공원이 정확하게 어디를 지칭하는지는 모르겠으나, KAIST 교정도 나름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편이라고 생각한다. 웬지 4월에 흐르는 벚꽃을 보며 ‘질 때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면서, 어은동산을 오르는 그 노천극장 옆길이 기억나는 것이었다.

시 자체에서 주는 감정도 아련하게 공감할 수 있었다. 하고 싶은 말을 여러 표현을 빌려가며 그 느낌을

구체적으로 그려나가는 것이 인상깊었다. 예컨대, 이별한 연인을 1) 이젠 나를 떠나라고 말한 2) 오직 축하해주고 싶은 3) 늦은 사랑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행을 넘길 때마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게 되는 그런 구절이었다. 아, 다시 읽어도 참 좋다. 같은 말을 점점 걱정적인 표현으로 반복하는 대개의 낭만주의 시들에서 간혹 느껴지는 부담스러움 없이, 정말 수은등 아래 고요히 빛나는 벚꽃처럼 차분한 느낌을 주었다.

시를 읽으며 새로 배운 단어도 몇 개 있었는데, ‘피안’과 ‘수음’이 바로 그것이다. 교수님께서 두 어휘를 이미 모두 아실 테니 정의는 생략한다. 피안이라는 단어는 시집의 다른 시에서도 (‘아주 가까운 피안’)에서도 등장하는데, 불교와 관련된 단어들은 참 좋은 뜻을 가진 단어들이 많은 것 같다. (전에 동아리 선배에게서 ‘돈오’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에도 비슷한 생각을 했다.) 꽃들은 피안에서 내세로 터져 나온다. 아, 이제는 꽃봉오리만 보아도 향기가 날 것 같다. 피안 직후에 수음이란 단어를 보아서 일지는 모르겠으나, 웬지 수음이란 단어는 그 행위와 다르게 굉장히 정갈한 느낌을 주는 단어였다. ‘자위’나, 속된 표현으로 ‘딸친다’는 표현과는 다르게, 웬지 어떤 의식의 한 단계같은 느낌. 감히 상상하자면 예수도 수음은 했을 것이다. 그래서 “사춘기 때 수음 직후의 그 / 죽어버리고 싶은 죄의식처럼,”이라는 표현이 웬지 나에게는 더 추한 것을 포장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사실 수음 직후에 오는 허탈감을 ‘죽어버리고 싶은 죄의식’으로 까지는 느껴본 적은 없었던 저질스러운 나라서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뭐, 수은등 아래 벚꽃-아래에서 분위기 잡고 지나간 사랑과 자신의 아픔을 독백하는 시에서라면 그정도 포장은 허용하려고 했다. 물론 그 순백은 직후에 나오는 “그 똥덩어리에 똑똑 떨어지던 죄처럼,”에서 더러워졌다.

이제 조금 글을 정리해보려 한다. 시에서 약간 ‘체념’한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나의 생이 이렇게 될 줄 / 그때 이미 다 알았다’ 같은 구절 때문일까. 이미 어떤 정리를 끝내고, 다만 어떤 원망 없이 아름다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인상깊었다. 내가 몇 개의 인연에서 마음을 접을 때의 기억이 난다. 항상 잠시 저주하고, 스스로를 변명하고, 결국 깔끔하게 접지 못하고 짓궂게 구겨버린 사람들이 떠올랐다. 올해 새로 생긴 노천극장 코인노래방을 들렀다가, 잠시 호적한 어은동산 길을 다시 올라보았다. 웬지 지금은 아무렇지 않았다. 그때의 복잡한 원망과 미안함의 감정이 구체적으로 떠오를 뻔 하다가, 그저 아름다웠다. 그 사람들이 한 때는 “이번 생을 눈부시게 했던” 사람들이었지, 하고 잠시 생각해본다. 산벚나무는 어느새 이른 낙엽을 흘리고 있다. 달이 보름지다.



“존경하는 서남표 총장님 청감”